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허 나 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A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Undergraduate Students in Nursing

Heo, Narae

Graduate School,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undergraduate students in nursing practicums.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170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a nursing practicum.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Results:** Dominant-ascendant ($\beta=.25, p=.011$), sympathetic-acceptable ($\beta=.34, p<.001$) and social-friendly ($\beta=.18, p=.024$)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and Intellectual integrity ($\beta=.17, p=.027$), open-mindedness ($\beta=.15, p=.024$), Prudence ($\beta=.16, p=.016$), and Inquisitiveness ($\beta=.21, p=.008$)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predi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s. **Conclusion:**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variation of dispositions according to generation, research 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hrough in-depth study with multi-faceted approache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상 현장에서의 대인관계는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간호사와 환자의 대인관계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치료적 관계에서 중요하다 [1].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보건의료인과의 대인관계는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통합적 치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 관계로 중요하다[2]. 그런데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향(disposition)은 각 사람의 행위(behavior), 능력(competence), 기술(skill)과 관련되어 있다[3-6]. 따라서 개인의 대인관계 성향은 실제 임상상황에서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대인관계 기술을 적용하기에 앞서, 간호대학생들 본인의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간호대학생,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Corresponding author: Heo, Narae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Ewhayeodae-gil 52,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4588, Fax: +82-2-3277-2850, E-mail: marvelouscare@hanmail.net

Received: May 21, 2014 | Revised: Aug 23, 2014 | Accepted: Mar 20,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 불허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임상 현장에서 비판적 사고와 환자 안전,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7]. 전문가들은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구성요소인 기술과 정의적 구성요소인 마음의 습관으로 구성된다고 합의의 도출하였으며, 마음의 습관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으로 인해, 개방성, 유연성, 자신감, 창조성, 호기심, 반성, 지적 진실성, 직관 및 맥락적 관점이 이에 해당된다[8].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들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호학 분야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현장에서 정확한 간호진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9],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성이 있다[10].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의 간호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역량으로[11], 간호대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선행연구[12-14]에서 의사소통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돌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환자 간호와 관련된 타 부서 및 조직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대상자, 돌봄자 및 의료종사자와의 의사소통은 결과적으로 대상자 중심의 전인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간호대학협회[15]는 의사소통 기술을 학부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과 의사소통능력이 갖는 각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관련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성향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16]. 이에 의사소통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인관계 성향·비판적 사고성향과 각각의 성향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며, 각각의 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 및 영향을 분석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간호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임상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관계와 영향을 밝히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정도 및 관련성을 탐색하고,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4년제 3개 대학교에 임상실습을 중인 3,4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3 analysis software[21]를 사용하여, 대인관계 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독립변수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최대 8개의 독립변수를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로 산출하였으며,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확률 $\alpha = .05$, 검정력 $(1-\beta) = .80$ 으로 계산한 결과인 109명을 근거로 하였다. 중도 탈락 고려하여 총 18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한 10부를 제외하고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인관계 성향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hn[17]이 Leary[18]와 Krech[19]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4문항으로 3개의 성향이 7개 차원으로 분류된 총 1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성향은 역할 성향, 사회 관계 성향 및 표현 성향으로, 역할 성향은 '지배적-우월적(dominant-ascendant), 독립적-책임적(independent-responsible)', 사회 관계 성향은 '동정적-수용적(sympathetic-Acceptable), 사교적-우호적(socialfriendly)'의 2개의 차원, 표현 성향은 '경쟁적-공격적(competitive-aggressive), 과시적-도취적(ostentation narcissistic), 반항적-불신적(rebellious distrustful)'으로 나누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며, 총 점수와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해당 영역의 대인관계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Ahn[8]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지배적-우월적 .73, 독립적-책임적 .54, 동정적-수용적 .71, 사교적-우호적 .85, 경쟁적-공격적 .75, 과시적-도취적 .81, 반항적-불신적 .78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20]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지적통합(intellectual integrity), 창의성(creativity), 도전성(challenge), 개방성(open-mindedness), 신중성(prudence), 객관성(objectivity), 진실추구(truth-seeking), 탐구성(inquisitiveness)이 포함된 8가지 하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자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2였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Rubin[21]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S)을 한국 정서와 부합되는 차원을 고려하여 수정·개발한 Hur[22]의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역사사지(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or dual perspective), 사회적 긴장완화(social relaxation), 주장력(assertiveness), 집중력(concentration), 상호작용관리(interaction management), 표현력(expressiveness), 지지(supportiveness), 즉시성(immediacy), 효율성(efficiency), 사

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 조리성(conversational coherence), 목표 간파(goal detection), 반응력(responsiveness), 잡음 통제력(noise control)이 포함된 15개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Hur (200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E대학교 생명윤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2-03-06) 후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설문지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3, 4학년 대상으로 1학기 실습이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 2학기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인,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9월 17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대인 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평균을 산출하였다.
-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98.0%가 여학생이고, 전체의 90.0% 이상이 25세 미만이었다. 응답자의 33.0%가 약 20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한 3학년 학생이고, 67.0%가 4학년 학생으로 약 60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였다. 전체 학생의 22.0%가 대인관계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고, 35.0%가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을 수강

하였으며, 90.0%가 의사소통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 (1.8)	
	Female	167 (98.2)	
Age (year)	21	19 (11.2)	
	22	51 (30.0)	
	23	57 (33.5)	
	24	32 (18.8)	
	≥ 25	11 (6.5)	
Grade	Junior	56 (32.9)	
	Senior	114 (67.1)	
Total practicum hours	≒ 200	56 (32.9)	
	≒ 600	114 (67.1)	
Learning experie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ass taken	Yes	38 (22.4)
		No	132 (77.6)
	Critical thinking class taken	Yes	60 (35.3)
		No	110 (64.7)
	Communication class taken	Yes	153 (90.0)
		No	17 (10.0)

2. 대인관계 성향 · 비판적 사고성향 · 의사소통능력

전체 대상자의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총점은 각각 2.9 ± 0.2 점, 3.2 ± 0.2 점, 3.2 ± 0.2 점이었다. 3학년의 경우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총점은 각각 2.9 ± 0.2 점, 3.2 ± 0.2 점, 3.3 ± 0.2 점이었고, 4학년의 경우 각각 2.9 ± 0.2 점, 3.2 ± 0.2 점, 3.3 ± 0.2 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의 경우,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고적-우호적,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지적통합, 개방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 성향이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자기노출, 사회적 긴장완화,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목표 간과, 반응력’ 능력이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반면, 대인관계 성향의 경우,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창의성, 도전성, 신중성’ 성향이 평균 점수보다 낮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역

지사지, 주장력, 집중력, 즉시성, 조리성, 잡음 통제력’ 능력이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평균점수보다 높고 낮은 점수의 범위는 최대 1.0 미만이었다(Table 2).

3. 하위 영역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의사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성향,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성향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인 ‘역지사지’는 대인관계 성향 하위 영역의 ‘지배-우월, 사고-우호,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 = .29, p < .001$; $r = .17, p = .020$; $r = .20, p = .006$, $r = .25, p = .001$), ‘주장력’은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 .18, p = .019$; $r = .17, p = .022$; $r = .19, p = .009$), ‘집중력’은 ‘반항-불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 .16, p = .034$). ‘즉시성’은 ‘독립-책임, 사고-우호’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 -.25, p < .001$; $r = -.17, p = .025$), ‘조리성’은 ‘지배-우월, 독립-책임, 경쟁-공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33, p < .001$; $r = .19, p = .010$; $r = .20, p = .008$), ‘잡음 통제력’은 ‘경쟁-공격, 반항-불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8, p = .019$; $r = .23, p = .002$).

의사소통과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주장력’은 ‘지적통합,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과 상관관계가 없었고($r = -.01, p = .868$; $r = .11, p = .148$; $r = .05, p = .455$; $r = .14, p = .053$; $r = .10, p = .187$; $r = -.02, p = .758$; $r = .12, p = .118$; $r = .13, p = .088$), ‘집중력’도 ‘지적통합,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과 상관관계가 없었다($r = .01, p = .805$; $r = .03, p = .629$; $r = .12, p = .097$; $r = -.13, p = .085$; $r = -.01, p = .830$; $r = -.07, p = .318$; $r = .02, p = .760$; $r = .06, p = .394$).

5.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성향의 하부 영역이 의사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12~.497로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434~.707로 1.0 이하이며,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415~2.672으로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고, Durbin-Watson 상관관계는 2.136을 나타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고,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Variables		M±SD	3 rd grade	4 th grad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Dominant-ascendant (DA)	2,6±0,4	2,6±0,4	2,6±0,3
	Independent-responsible (IR)	3,1±0,3	3,1±0,3	3,1±0,2
	Sympathetic-acceptable (SA)	3,5±0,3	3,5±0,3	3,4±0,4
	Social-friendly (SF)	3,4±0,5	3,3±0,6	3,5±0,4
	Competitive-aggressive (CA)	2,6±0,5	2,7±0,5	2,6±0,4
	Ostentation-narcissistic (ON)	2,9±0,4	2,9±0,4	2,9±0,3
	Rebellious- distrustful (RD)	2,2±0,4	2,2±0,4	2,2±0,4
	Role_DA_IR	2,8±0,3	2,8±0,3	2,8±0,2
	Social SA_SF_CA	3,2±0,2	3,2±0,3	3,2±0,2
	Expression ON_RD	2,5±0,3	2,6±0,3	2,5±0,3
Total	2,9±0,2	2,9±0,2	2,9±0,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integrity	3,6±0,4	3,5±0,5	3,6±0,4
	Creativity	3,0±0,8	3,0±0,9	3,0±0,7
	Challenge	2,6±0,5	2,7±0,5	2,6±0,5
	Open-mindedness	3,6±0,5	3,6±0,5	3,7±0,4
	Prudence	3,2±0,4	3,2±0,4	3,2±0,4
	Objectivity	3,3±0,4	3,2±0,5	3,3±0,4
	Truth-seeking	3,3±0,6	3,3±0,6	3,3±0,5
	Inquisitiveness	3,4±0,5	3,3±0,6	3,4±0,5
Total	3,2±0,2	3,2±0,2	3,2±0,2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disclosure	3,5±0,5	3,4±0,5	3,5±0,5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or dual perspective	2,8±0,4	2,7±0,4	2,8±0,4
	Social relaxation	3,6±0,4	3,6±0,5	3,5±0,4
	Assertiveness	3,2±0,4	3,2±0,4	3,2±0,4
	Concentration	2,7±0,4	2,7±0,4	2,8±0,4
	Interaction management	3,4±0,5	3,4±0,5	3,4±0,5
	Expressiveness	3,4±0,5	3,4±0,5	3,4±0,5
	Supportiveness	3,3±0,4	3,4±0,4	3,3±0,4
	Immediacy	2,9±0,4	2,9±0,4	2,9±0,4
	Efficiency	3,6±0,4	3,7±0,4	3,5±0,4
	Social appropriateness	3,6±0,4	3,7±0,3	3,5±0,4
	Conversational coherence	3,0±0,4	3,1±0,5	3,0±0,4
	Goal detection	3,6±0,4	3,6±0,5	3,6±0,4
	Responsiveness	3,7±0,4	3,7±0,5	3,6±0,4
	Noise control	2,4±0,4	2,4±0,4	2,4±0,5
Total	3,2±0,2	3,3±0,2	3,2±0,2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는 산점도 상에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고, 관측 누적 확률과 기대누적 확률은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정규분포를 만족하여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R²값은 .364로 대인관계 성향 변인들이 의사 소통 능력을 36.4% 설명하고 있다. 의사 소통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β 값을 살펴본 결과 ‘지배-우월’(β=.25, p=.011), ‘동정-수용’(β=.34, p<.000), ‘사고-우호’(β=.18, p=.024)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 영역이 의사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02~.454로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655~.916로 1.0 이하이며,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92~1.529로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고, Durbin-Watson 상관관계는 2.063를 나타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고,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는 산점도 상에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고, 관측 누적 확률과 기대누적 확률은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정규분포를 만족하여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R²값은 .32로 대인관계 성향 변인들이 의사 소통 능력을 32.0%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β 값을 살펴본 결과 ‘지적

Table 3. Correlations amo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e														
	SD	EPT	SR	AT	Conc.	IM	Exp.	Sup.	Immed.	Ef.	SA	CC	GD	Res.	NC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Total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19* (.013)	.29** ($< .001$)	.41** ($< .001$)	.20** (.007)	.08 (.295)	.41** ($< .001$)	.28** ($< .001$)	.21** (.004)	-.07 (.335)	.26** ($< .001$)	-.04 (.545)	.25** (.001)	.19* (.012)	.26** ($< .001$)	.10 (.184)
Dominant-ascendant	-.01 (.881)	.29** ($< .001$)	.20** (.007)	.18* (.019)	.13 (.075)	.25** (.001)	.06 (.413)	.11 (.125)	-.10 (.193)	.20** (.007)	-.13 (.077)	.33** ($< .001$)	.11 (.153)	.12 (.120)	.09 (.221)
Independent-responsible	.33** ($< .001$)	.14 (.060)	.36** ($< .001$)	-.06 (.379)	.11 (.139)	.36** ($< .001$)	.36** ($< .001$)	.16* (.034)	-.25** (.001)	.26** (.001)	.03 (.672)	.19** (.010)	.21** (.005)	.27** ($< .001$)	-.06 (.427)
Sympathetic-acceptable	.29** ($< .001$)	-.01 (.856)	.27** ($< .001$)	.10 (.189)	-.03 (.658)	.37** ($< .001$)	.48** ($< .001$)	.24** (.002)	.11 (.124)	.31** ($< .001$)	.25** (.001)	.10 (.197)	.38** ($< .001$)	.45** ($< .001$)	-.10 (.162)
Social-friendly	.40** ($< .001$)	.17* (.020)	.38** ($< .001$)	.08 (.248)	-.02 (.774)	.38** ($< .001$)	.49** ($< .001$)	.31** ($< .001$)	-.17* (.025)	.14 (.064)	.05 (.508)	.00 (.981)	.25** (.001)	.34** ($< .001$)	-.03 (.622)
Competitive-aggressive	-.05 (.466)	.20** (.006)	.21** (.005)	.17* (.022)	.03 (.667)	.17* (.025)	-.07 (.321)	.01 (.859)	.01 (.847)	.12 (.111)	-.20** (.009)	.20** (.008)	-.02 (.713)	.02 (.798)	.18* (.019)
Ostentation-narcissistic	.16* (.037)	.25** (.001)	.31** ($< .001$)	.19** (.009)	-.03 (.643)	.38** ($< .001$)	.27** ($< .001$)	.16* (.031)	-.08 (.276)	.23** (.002)	-.05 (.516)	.13 (.079)	.11 (.126)	.22** (.003)	.05 (.441)
Rebellious-distrustful	-.27** ($< .001$)	.11 (.134)	-.02 (.784)	.12 (.095)	.16* (.034)	-.18* (.017)	-.31** ($< .001$)	-.10 (.181)	.13 (.074)	-.11 (.154)	-.08 (.290)	.12 (.098)	-.17* (.021)	-.26** ($< .001$)	.23** (.00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critical thinking	.29** ($< .001$)	.11 (.121)	.26** (.001)	.16* (.032)	.05 (.503)	.38** ($< .001$)	.27** ($< .001$)	.23** (.002)	-.03 (.676)	.33** ($< .001$)	.16* (.037)	.34** ($< .001$)	.30** ($< .001$)	.35** ($< .001$)	.03 (.672)
Intellectual integrity	.37** ($< .001$)	.02 (.724)	.30** ($< .001$)	-.01 (.868)	.01 (.805)	.45** ($< .001$)	.39** ($< .001$)	.27** ($< .001$)	-.10 (.176)	.35** ($< .001$)	.08 (.279)	.15* (.042)	.33** ($< .001$)	.39** ($< .001$)	-.20** (.007)
Creativity	.10 (.163)	.13 (.072)	.04 (.591)	.11 (.148)	.03 (.629)	.33** ($< .001$)	.17* (.020)	.06 (.379)	-.07 (.328)	.22** (.003)	.06 (.399)	.19** (.009)	.17* (.025)	.16* (.028)	.10 (.193)
Challenge	-.28** ($< .001$)	-.10 (.182)	-.17* (.022)	.05 (.455)	.12 (.097)	-.41** ($< .001$)	-.36** ($< .001$)	-.13 (.071)	.19* (.013)	-.25** (.001)	.00 ($< .001$)	-.03 (.646)	-.21** (.004)	-.29** ($< .001$)	.19** (.010)
Open-mindedness	.27** ($< .001$)	-.09 (.198)	.25** (.001)	.14 (.053)	-.13 (.085)	.21** (.005)	.23** (.002)	.28** ($< .001$)	.06 (.370)	.26** ($< .001$)	.19** (.010)	.12 (.099)	.22** (.003)	.30** ($< .001$)	-.13 (.083)
Prudence	-.04 (.598)	.00 (.982)	-.01 (.852)	.10 (.187)	-.01 (.830)	-.08 (.259)	-.02 (.777)	.06 (.416)	.24** (.001)	.17* (.023)	.14 (.065)	.21** (.004)	.11 (.130)	.04 (.550)	.13 (.083)
Objectivity	.27** ($< .001$)	.14 (.052)	.18* (.017)	-.02 (.758)	-.07 (.318)	.35** ($< .001$)	.20** (.007)	.15* (.048)	-.27** ($< .001$)	.32** ($< .001$)	.05 (.495)	.27** ($< .001$)	.18* (.017)	.24** (.001)	-.06 (.419)
Truth-seeking	.26** ($< .001$)	.17* (.022)	.26** ($< .001$)	.12 (.118)	.02 (.760)	.26** ($< .001$)	.12 (.112)	.11 (.126)	.00 (.921)	.12 (.113)	.11 (.142)	.21** (.006)	.15* (.049)	.22** (.003)	.05 (.469)
Inquisitiveness	.29** ($< .001$)	.14 (.054)	.27** ($< .001$)	.13 (.088)	.06 (.394)	.40** ($< .001$)	.36** ($< .001$)	.18* (.016)	-.14 (.055)	.21** (.005)	.04 (.547)	.21** (.004)	.20** ($< .001$)	.41** ($< .001$)	-.06 (.438)

SD=Self-disclosure; EPT=Empathy & perspective-taking; SR=Social relaxation; AT=Assertiveness; Conc=Concentration; IM=Interaction management; Exp.=Expressiveness; Sup.=Supportiveness; Immed.=Immediacy; Ef.=Efficiency; SA=Social appropriateness; CC=Conversational coherence; GD=Goal detection; Res.=Responsiveness; NC=Noise control.

통합' ($\beta = .17, p = .027$), '개방성' ($\beta = .15, p = .024$), '신중성' ($\beta = .16, p = .016$) '진실추구' ($\beta = .14, p = .047$), '탐구성' ($\beta = .21, p = .008$)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공차한계(tolerance)는 .825로 1.0 이하이며,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212로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고, Durbin-Watson 상관관계는 2.18를 나타내 잔차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Influential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onstant)	78.10	8.70		8.96	< .001
	Dominant-ascendant	0.51	0.20	.25	2.56	.011
	Independent-responsible	0.34	0.18	.13	1.82	.069
	Sympathetic-acceptable	0.75	0.16	.34	4.56	< .001
	Social-friendly	0.29	0.13	.18	2.28	.024
	Competitive-aggressive	0.08	0.15	.05	0.56	.574
	Ostentation-narcissistic	-0.01	0.17	-.00	-0.09	.926
	Rebellious-distrustful	-0.20	0.15	-.11	-1.27	.205
Adjusted R ² =.36, F=14.81, p<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nstant)	90.85	9.04		10.04	< .001
	Intellectual integrity	0.61	0.27	.17	2.23	.027
	Creativity	0.13	0.20	.04	0.63	.525
	Challenge	-0.32	0.20	-.11	-1.62	.107
	Open-mindedness	0.99	0.43	.15	2.27	.024
	Prudence	0.92	0.37	.16	2.43	.016
	Objectivity	0.32	0.36	.06	0.88	.376
	Truth-seeking	0.73	0.36	.14	2.00	.047
	Inquisitiveness	0.75	0.28	.21	2.68	.008
Adjusted R ² =.32, F=11.05, p< .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Influential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edictors	B	SE	β	t	p
(Constant)	67.13	9.06		7.41	< .001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0.14	.03	.31	4.47	<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0	.17	.36	5.17	< .001
Adjusted R ² =.32, F=40.12, p< .001					

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고,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는 산점도 상에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고, 관측 누적 확률과 기대누적 확률은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정규분포를 만족하여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R²값은 .32로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성향은 의사소통 능력을 32.0% 설명하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하는 3, 4학년 대상자로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계획과 실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대상자의 대인관계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은 22.4%, 비판

적 사고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은 35.3%, 의사소통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은 90%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관련 수강 경험의 경우 Chaung[23]이 전국에 소재한 5개의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41.6%)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관련 수강 경험(86.0%)은, Park과 Choi[16] 전국에 소재한 6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66.7%)보다 다소 높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강 경험에 대한 응답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임상현장 적용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와 비판적 사고 관련 교과목의 수강 경험은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의 수강 경험보다 적었다.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을 하려는 의견 교환 과정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볼 때, 대인관계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간호대학생들에게 강조되어, 폭넓은 다양한 교과과목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성향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와 Choi[16]의 연구와 비교할 때,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평균 0.1점 내에서 결과가 유사했고, '경쟁적-공격적(competitive-aggressive)'와 '반항적-불신적(rebellious-distrustful)' 영역에서 평균 0.3점이 낮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Park와 Kim[5]가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같은 측정범위로 환산하여 평균을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개방성(open-mindedness)과 진실추구(truth-seeking)는 각각 3점, 7점이 높았으며, 도전성(challenge)과 객관성(objectiveness)은 3점이 낮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선행연구의 대상자였던 간호사보다 개방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성향을 띠었고, 간호사들이 학생들보다 도전성과 객관적인 사고 성향을 띠었다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경험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객관적인 사고 성향[20]과 전문인력 간 협력과 대인 의사소통의 중요성[23]을 고려해 본다면, 간호대학생들의 객관적인 사고 성향과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추후 분석을 통해 성향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된 Im과 Kim[21]의 연구와 비교할 때,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간호사들보다 역지사지(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or dual perspective), 집중력(concentration), 즉시성(immediacy), 잡음통제력(noise control) 영역에서 약 1점 내외 정도가 낮았다. '역지사지'는 환자와의 대화에서 언어적·비언어적 신호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의사소통이고, '즉시성'은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이며, '잡음통제력'은 환자 및 조직 간에 복잡한 문제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물리적·심리적·의미적 잡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2], 실제로 환자와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능력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의사소통능력을 현장에서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환자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임상 상황을 재연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들을 재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다양한 차원과 차원에 따른 속성들과 이와 관련된 의사

소통능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내재되어야 할 성향이라고 여겨지는 몇 요소들이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인 '역지사지, 주정력, 집중력'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소통에서의 '역지사지'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다. Hurl[22]의 연구에서 감정을 이입하고 입장을 취하는 것을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or dual perspective: 역지사지'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모두 이해하는 정의적·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였던 '역지사지'는 대인관계 성향의 '독립-책임, 동정-수용'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와는 관련이 있었다. 즉, 해당 연구의 결과는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동정적이고 수용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의 느낌과 입장 및 생각을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정적이고 수용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허용하며, 다른 사람의 느낌을 생각하여 친절하고 관대한 행동을 하며 옹호하는 성향으로[19], 동정-수용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역지사지' 의사소통능력은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자질이며,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간호학에서 이미 검증되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시키는 것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재고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역지사지' 능력과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의 대인관계 성향이 관련있다는 결과는,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대학 입시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관련 성향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과정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지배적이고 우월적 성향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권위적인 역할을 취하여 지시나 충고를 할 수 있으며, '경쟁-공격, 과시-도취'적 성향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과시적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17]. 이러한 일방향적이고 수직적인 역할성향과 단힌 표현 성향은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환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25]에서는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아동과의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 사고성향이 중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전문 치료자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 상담자로서

의 자질과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면, 전문직 간호사로 일하기에 앞서 자신의 성향과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교육과정이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였던 ‘주장력, 집중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구성 요소였던 ‘지적통합,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임상현장에서 주장적인 의사소통은 업무 간 발생하는 갈등을 감소시키고, 집중적인 의사소통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6]. 따라서, 주장적·집중적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앞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Kwon[20]은 모든 정보의 종합 및 상황에 맞는 총체적·체계적인 고려, 아이디어 및 대안에 대한 지적인 창안, 포기 없이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 여러 관점에 대한 수용 및 본인의 오류가능성과 편견 인정, 급하게 일처리 없이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 확보까지의 판단 보류 및 심사숙고, 경험 및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근거를 통한 결론 도출, 반복 사고과정을 통한 올바른 결정, 대안 탐색을 위한 관찰 및 의구심을 통한 지식과 이해 추구를 위한 노력을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부 요인의 구성 내용들로 포함하여, ‘지적통합,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이라 명명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간호학적 돌봄 지식이 통합적으로 실무에서 발휘되는 실천 능력, 즉 간호실무능력에도[27] 관련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정보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음을 열어 전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27]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다면, 대상자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식을 근거를 제시하여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 성향들이 발현되어 주장적이며 집중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 후 이와 관련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영역 중 ‘지배-우월, 동정-수용, 사교-우호’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4%였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 중 ‘지적통합, 개방성, 신중성, 진실추구, 탐구성’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2.0%였다.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2.0%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설명력이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졸업 후,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소통능력은 임상 실무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재적 성향들이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성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로 향후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 및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서 실무 영역에서 간호 제공자로서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특성과, 현 세대를 이끌어가는 간호대학생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있어 근거 기반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대 성향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대상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총점으로 환산 한 대인관계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소통능력의 통계적 결과는, 전반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과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설명력은 36.4%, 32.2%였고, 대인관계 성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31.6%였다. 그러나 환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내재되어야 할 성향이라고 여겨졌던 ‘독립-책임, 동정-수용’의 성향이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인 ‘역지사지(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or

dual perspective)'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인 '주장력, 집중력'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REFERENCES

1. Peplau HE. Peplau's theor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urs Sci Q*. 1997;10(4):162-7.
2. Petri L. Concept analysis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Nurs Forum*. 2010;45(2):73-82.
3. Choi H, Cho D.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2011;17(3):265-74.
4. Yang S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0;16(4):389-98.
5. Park JA, Kim BJ.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2009;39(6):840-50.
6. An GJ.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 Ind Sci Cheongju Univ*. 2011;28(2):1-5.
7. Maneval R, Filburn M, Deringer S, Lum G. Concept mapping: does it improve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practical nursing students? *Nurs Educ Perspect*. 2011;32(4):229-33.
8. Scheffér BK, Rubenfeld MG. A consensus statement on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J Nurs Educ*. 2000;39(8):352-59.
9. Paans W, Sermeus W, Nieweg RM, Krijnen WP, van der Schans CP. Do knowledge, knowledge sources and reasoning skills affect the accuracy of nursing diagnoses? a randomised study; *BMC Nurs*. 2012 Aug 1;11:11. <http://dx.doi.org/10.1186/1472-6955-11-11>
10. Jeong GS, Kim KA, Seong JA.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3;19(3):413-22.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13>
11. Edgar M, Mayer JP, Scharff DP. Construct validity of the core competencies for public health professionals. *Public Health Manag Pract*. 2009;15(4):E7-16. <http://dx.doi.org/10.1097/PHH.0b013e31819c1452>
12. Epstein RM, Street RL.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in cancer care*. Bethesda, MD: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7.
13. Curtis JR, White DB. Practical guidance for evidence-based ICU family conferences. *Chest*. 2008;134:835-43. <http://dx.doi.org/10.1378/chest.08-0235>
14. Adams JM, Erickson JI. Applying the Adams influence model in nurse executive practice. *J Nurs Adm*. 2011;41(4):186-92. <http://dx.doi.org/10.1097/NNA.0b013e3182118736>
15. Standard for accreditation of baccalaureate and graduate program [Internet]. 2013, May [cited 2014 May 5] Available from: <http://www.aacn.nche.edu/ccne-accreditation/Standards-Amended-2013.pdf>
16. Park JW, Choi M-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9;18(3):351-60.
17. Ahn BH. Validation study for scales relat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dequ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84.
18. Leary T.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7.
19. Krech D et al.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62.
20. Kwon IS, Lee GE, Kim GD, Kim YH, Park KM, Park HS, et al.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6;36(6):950-58.
21. Rubin RB. *Communication Competence*. In Phillips GM, Wood JT,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pp. 94-129).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0. 94-129 p.
22.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 Journalism Commun Stud*. 2003;47(6):380-408.
23. Chaung S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1;18(1):71-8.
24. Im SB, Kim EK.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difficult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preceptor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8;17(4):471-80.
25. Yoo MS, Jun JM, Baek SY. The effects of play therapist's self-efficacy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s- *J Kore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8;20(3):615-34.
26. Lee KJ. Communication problems and solutions at the health care facilities. *Korean J Health Commun*. 2006;1(2):33-45.
27. Song YS. A correlation study on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of new nurses. 2009;16(1):55-63.
28. Ennis RH.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In Henry A, Alexander (Ed.), *Philosophy of education 1992*. Urbana, IL: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1993. p. 76-80